

2013 광주·전남 스포츠 10대 뉴스

2019 세계 수영대회 유치 ... KIA 챔피언스 필드 완공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13년이 저문다. 올 한해 동안 광주·전남 스포츠 스타들은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많은 메달을 성취했다. 하지만 KIA의 성적이 하반기들어 급하락해 팬들의 아쉬움도 많았다. 2019년 세계 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하고, 광주 챔피언스 필드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등 광주의 체육 환경도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올 한해 광주·전남 스포츠계의 명암을 뒤돌아본다.



완공을 눈 앞에 둔 챔피언스 필드는 지하 2층 지상 5층, 2만2244석 규모로 국내 최초로 콘코스(Concourse) 개방형 구조를 도입해 관람객들이 이동을 하면서도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외야에는 국내 최대 규모(35m×15m)의 풀 HD급 전광판이 설치됐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포스트 김연아' 나주출신 박소연

1 광주시,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유치

광주시는 지난 7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국제 수영연맹(FINA) 총회에서 헝가리와 경합 끝에 '2019년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정부가 유치과정에서 공문서 위조 사례가 발견되며 지원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와관련, 여야 국회의원 154명은 공동발의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등을 담은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상태다.

2 광주 챔피언스 필드 준공 눈앞

10월 4일 KIA와 넥센의 2013 프로야구 최종전을 끝으로 32년의 무등시대가 막을 내렸다. 내년 시즌부터는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가 '호랑이 군단'의 새로운 안방이 된다. 완공을 눈 앞에 둔 챔피언스 필드는 지하 2층 지상 5층, 2만 2244석 규모로 국내 최초로 콘코스(Concourse) 개방형 구조를 도입해 관람객들이 이동을 하면서도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외야에는 국내 최대 규모(35m×15m)의 풀 HD급 전광판이 설치됐다.

내년 시즌 프로야구 일정에 따라 4월1일 NC전이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첫 경기로 남는다. 한편 지난 8월에는 KIA 2군 전용구장인 함평 기아 챌린저스 필드가 클럽하우스 완공과 함께 정식으로 개장하면서 '화수분 야구'의 기틀이 세워졌다.

3 인천 전국체전 골프·女 볼링 석권

지난 10월 인천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 광주·전남 성적은 전년보다 한계단씩 하락했지만 골프와 여자 볼링 종목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광주 공태현(호남대 1년)·조대권(동일전자정보고 3년)·주혁(1년) 조는 남자일반부 단체전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공태현은 남자일반부 개인전에서도 총 275타로 1위를 차지하며 2관왕에 올랐다. 이영성(전남조리과학고 3년)과 김동요(고흥산업과학고 1년)를 앞세운 전남 볼링 선발은 여고부 전종목(개인전·2인조·3인조·5인조·마스터즈)을 휩쓸었다. 최복음(광양시청)은 남자 일반부 마스터즈를 5연패했다.

4 女 유도·체고 배구부 등 창단 활기

광주와 전남에서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와 아마팀 창단이 붓물을 이뤘다. 지난 3월 광주 도시철도공사가 여자유도 선수단을 창단, 올 한해동안 전국규모 대회에서 총 10개의 메달(금2, 은2, 동4개)을 수확했다.

이달 초에는 광주 배구인들의 숙원인 여고 배구팀이 광주체고에 만들어졌다. 치경초-체중-체고로 선수육성이 연계되며 광주 여자 배구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수 충무고는 2006년 남자부 불려부에 이어 지난 2월 여자부까지 창단해 불려 육성학교의 기틀을 닦았다. 여수 화양고도 4월에 남자부 농구팀을 만들었다.

5 양학선·박소연 등 지역출신 맹활약

양학선, 박소연 등 지역출신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도마의 신' 양학선이 10월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열린 제44회 기계체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도마 종목을 2연패했다. '스카하라 트리플'과 '양학선 2'를 앞세워 아시안게임에서의 메달을 노리고 있다. '포스트 김연아' 나주출신 박소연은 11월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배 전국대회에서 여자 1그룹 우승을 차지하며 소치 올림픽 출전자격을 얻었다. 진흥고 출신의 임창용은 9월 시카고 컵스 유니폼을 입고 밀워키 브루어스와외의 경기에 출전하면서 19년 만에 빅리거의 꿈을 이뤘다.

프리미어리그 선덜랜드의 기성용은 SNS 파문을 틔

고 최근 리그컵 8강에서 헐시를 상대로 결승골을 터트리며 부활을 알렸다.

6 FA, 이용규 떠나고 이대형 오고

5월6일 프로야구판을 떠돌아다니다 한 대형 트레이드가 있었다. 2009년 우승청부사로 활약했던 김상현이 2대2 트레이드를 통해 투수 진해수와 SK로 떠났다. 투수 송은범·신승현은 KIA유니폼을 입었다. 불펜의 약점, 타선 강화추진에서 '원인 트레이드'라는 평가였지만 공교롭게도 트레이드 이후 불펜 운영에 헛집을 노출하면서 KIA의 추락이 시작됐다. 겨울에는 톱타자 이용규가 요란하게 팀을 떠났다. FA 원소속 구단 우선 협상 기간 돌던 KIA와의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폭풍을 몰고 온 이용규는 4년간 총액 67억원에 한화 선수가 됐다. 이용규를 떠나보낸 KIA는 이대형에게 24억원을 안겨주며 전력을 보강했다. 트레이드로 광주에 왔던 신승현은 이대형의 FA 보상선수로 LG 선택을 받으면서 1년도 안돼 다시 팀을 옮겼다.

7 감독사퇴·성적부진...광주 FC '잡음'

광주 FC에게는 K리그 데뷔 후 세 번째 시즌. 지난해 K리그 첫 강등팀이 되며 눈물을 흘렸던 광주의 2013시즌 목표는 웰린지 리그(2부) 우승이었다. 클래식 리그(1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막강 '우승후보'로 꼽혔지만 출발이 좋지 못했다. 이승기·김동섭 등 팀을 대표했던 선수들이 대거 이적을 하며 전력과 팀워크가 약화됐고, 개막 후 10경기에서 2승을 거두는데 그치며 위기를 맞았다. 여기에 역대 최강 멤버를 자랑한 상주 상무와 경찰축구단의 기세에 눌리며 우왕좌왕 시즌 초반을 보냈다. 뒤늦게 광주의 질주를 시작했지만 초반 부진에 발목 잡히면서 결국 여범규 감독이 취임 1년도 안돼 지휘봉을 내려줬다. 남기일 감독대행 체제로 후반기가 꾸러졌지만 상주와 경찰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우승후보' 광주는 3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8 8위 KIA 초라한 시즌 성적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미약했다. FA 대어 김주찬으로 스피드를 업그레이드한 KIA는 시범경기에서부터 무서운 힘을 보여줬다. 최희삼·나지완의 질주와 이범후의 부활, 신종길의 각성 더해지면서 쉬어갈 곳 없는 타선이 구축됐다. 공포의 타선으로 불란했던 마운

드를 지탱하며 7할이 넘는 승률을 기록하는 등 이전 없는 우승후보이자 4강은 때어놓은 대상인 것 같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부상을 피해가지 못했다. 개막 4경기 만에 손목 골절로 김주찬이 부상병이 됐고, 김원삼·양현종·이용규·신종길 등도 부상에 신음했다. 앤서니의 마무리 카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며 위기를 맞은 선동열 감독은 윤석민의 마무리 투입이라는 초강수까지 썼지만 이렇다할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1위에서 8위급 감독으로 추락, 자존심을 구겼다.

9 이세돌 13년만의 무관

이세돌 9단이 12월15일 최철한 9단과의 하이원리조트배 명인전 결승5번기 제5국에서 365수까지 가는 접전 끝에 불개패를 당했다. 시리즈 전적 2승3패가 되면서 최철한이 제8대 명인으로 등극했다. 우승 상금 8000만원을 내준 이세돌은 준우승 상금 2400만원에 만족해야 했다. 승부는 종반 우변 흑 대마의 사활을 놓고 패를 벌이는 과정에서 최철한이 이득을 보면서 갈렸다. 이세돌은 마지막 돌을 메우는 과정에서 실수하자 순순히 패배를 인정했다. 이날 패배로 최철한과의 번기 승부에서 4연승을 달리던 이세돌은 첫 패배를 당했다. 통산 상대전적은 31승20패가 됐다. 이세돌은 올해 맥심배, 칼텍스배, 춘란배, 삼성화재배, 명인전 등 5개 대회 결승에 진출했으나 모두 준우승에 그치며 13년 만에 무관으로 전락했다.

10 아마야구, 전국대회서 7회 우승

아마 선수들이 호남야구의 자존심을 살렸다. 올 시즌 광주 아마팀들은 전국대회에서 7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특히 대성초가 총재배와 회장배 야구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고, 서립초·수창초·화정초도 전국대회에서 매서운 호남 야구의 힘을 발휘했다. 소년체전에서는 총장배의 금메달이 나왔다. 동성고도 황금사자기·대한야구협회장기 4강을 이룬데 이어 32년 만에 부활한 야구대제전에서 출신 선수들의 활약 속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프로야구 지명회의에서도 지역 출신 선수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효천고 투수 차명진이 우선 지명으로 KIA 유니폼을 입고, 진흥고 투수 하영민(넥센), 동성고 에이스 박규민(SK), 동성고 출신 문동욱(롯데·건국대), 화순고 출신의 동국대 투수 고영표(KT)가 1라운드 지명을 받았다.